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기호

유성매직 그리고 청테이프

얼마 전, 어느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대화의 대부분은 오직 하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 압도적인 품질을 가졌다는 말부터, 와이파이(Wi-Fi)가 되는 카페와 그렇지 못한 카페, 앱 스토어에서 구입한 기상천외한 프로그램까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꺼내 놓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 속보들을 중간 중간, 충실하게 전해 주었다.

평소 얼리어답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젠 정말 구닥다리 세대가 되어버렸구나, 속으론 그렇게 찔끔했으면서도 겉으론 계속 어디선가 주워들은 '4G 스마트폰' 운운하면서 아는 체를 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하면서도 한편, 그들의 놀랄 만한 정보 접근력과 속도에 감탄했고, 그것이 못내 부럽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 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활력이고, 그들만의 세대의식이자 특권이겠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런 인정이 다시 뒤바뀐 건, 지난달 서울 어느 사립대 재학생인 김예슬양이 대자보를 통해 밝힌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공개 자퇴서를 읽게 된 이후부터였다. 내가 유심히 본 건 그녀의 자퇴서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녀의 글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왜 많고 많은 형식 중에서도 굳이 '대자보'란 구세대의 대화창을 사용했을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트위터, 싸이의 다이어리도 아닌,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대자보를 이용했을까? 나는 며칠 동안 계속 그 의문을 머릿속에 품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그 이유를 내 멋대로,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공개 자퇴서'를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대자보 보단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글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 뻔하다. 그녀를 옹호하는 댓글들과,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들, 양비론의 댓글들과, 농담의 댓글들이 속속 그 아래에 달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댓글과 댓글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일어났을 것이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 글을 삭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본 김예슬양 또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논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슬멋슬멋 들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건 비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문제만은 아니고, 트위터나 싸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니 어쩌면 그래서, 그녀는 '대자보'를 이용했다. 그것은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이 아닌 어떤 행동의 의미가 더 컸다. 쉽게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행동.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이십대 청춘들이 저마다 정치적 견해를 견지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과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보란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 의견들만 보면 과연 누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무관한, 자신의 스펙 쌓기에만 열중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한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이다. 치열하게 담론은 오고 가지만, 언제나 담론은 담론 수준에서만 머물고 만다. 누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행동으로, 정당한 투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비아냥거림으로, 또 다른 담론으로만 맞설 뿐이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겐 참으로 고마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그저 귀만 닫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의 뜻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안들이, 왜 수많은 비판들 속에서도 꿋꿋이, 아무런 지장없이 지속되고 있는가는 아마도 그런 사정들 때문일 것이다.

대자보를 작성한 김예슬 학생은 자신의 글 말미에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련다'라고 썼다. 그녀는 그 문장을 유성매직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을 청테이프에 의지해 게시판에 붙였다. 정보와 속도는 지식을 쌓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성까지는 담보하진 못한다. 어쩌면 우리시대의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지성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더 무서운 포기가 거기 숨어 있는 것이다.

〈소설가·광주대문예창작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교원 평가 시행 한달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원평가제가 시행 한달을 맞았다. 교원평가제는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평가를 받는 제도다. 오는 9월까지 교원 개개인에 대해 동료교사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학교 현장 곳곳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계획을 상세히 소개한 장문의 가정 통신문을 배포하는가 하면 모든 학급의 공개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수업준비 차질은 물론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지도와 수업태도 등 18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과 진행과정 등을 제대로 알고 평가할 지도 의문이고, 어린 학생들이 인기투표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정과목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도입 초기에 드러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보자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교원평가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교사뿐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평가할 수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 사정에 밝아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리 부실 '광 엑스포' 국제 행사 맞는가

지난 2일부터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0 광주 세계 광(光)엑스포'가 그 명칭에 걸맞게 '세계를 빛내는' 국제행사인지 의문이 든다. 일부 체험관 내 시설이 아직까지 수리 중인데다,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세계 광엑스포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장 내 빛 과학 체험관에 전시된 모스 부호와 자외선 그림자 놀이기구인 시광 필름 부스에는 개막된지 3일이 지났으나 '수리 중'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 수많은 중·고교생들이 찾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데다 인근 공군부대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에 전시물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사전 준비 소홀과 관리 부실 탓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람객들의 태도도 문제다. 태양광 홍보관에 비치된 솔라(solar) 충전기와 빛 도서관에 전시된 일부 도서가 도난당하고, '빛 예술 존'에 전시된 18개의 예술 작품 중 고근호의 '즐거운 상상 : 로봇'과 진시영의 '빛에 대한 2010개의 생각' 등은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 일부 전시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손자국으로 곳곳에 흠집 투성이라니 관람객들의 문화수준을 의심케 한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다 보면 작품에 고장이 생길 수 있고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세심한 안내와 철저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품을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훼손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학교와 엑스포 측의 사전교육은 필수적인 셈이다.

세계 광엑스포는 다음달 9일까지, 앞으로도 32일이나 남아 있다. 남은 기간 광엑스포를 비엔날레와 함께 광주를 빛낼 얼굴로 키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은펜칼럼

최영태

광주항쟁 30주년과 풀뿌리 민주주의

올해는 광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주항쟁은 1987년까지 계속된 '7년 항쟁'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국가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정치발달 국가로 만드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이면에는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굴절된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원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는 중앙정치만이 아니라 지방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광주·전남의 경우 자치단체장을 장악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까지 거의 100% 독점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광주·전남이 광주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때마침 올해에는 광주항쟁 주간이 끝나자마자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된다. 광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전남인들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항쟁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품격을 높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1차적 책무는 주권자들의 몫이다.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의 경우는 정당 불문하고 철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투표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1차적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적어도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아닌 후보자들이 최소한 1/3 이상 당선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광주·전남인들은 과거 군부 독재시대 때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으며, 그 덕분에 국회가 최소한이나마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했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되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광주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에게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역의회 선거구의 1/3을 무공천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물론 무공천이 정도는 아니다. 무공천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은 그 문제점이 특정정당이 시의회 및 구의회를 100% 독점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지역의 특수한 정치지형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이 지역민들에게서 입은 사랑과 은혜를 고려하여, 그리고 이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르게 성장할 때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독점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비정상적인 정치구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또 큰 정치를 꿈꾸지 못한다면 호남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 정치의 최종적인 책임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있다. 국가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광주정신을 구현하는 바른 길이다. 광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한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를 독점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의 고리를 끊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 민주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자.

〈전남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박창규

친절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 온다

올해 관광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공식 출범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한국방문의 해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 중국 등 동북아를 비롯해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히 한국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목적지로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알려 실제 관광수요 창출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통하여 새롭게 전남에 부여된 이미지는 전남의 '구석구석 여행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났다. 순천만은 구석구석 여행프로그램으로 홍보된 이래로 방문객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으며, 지금은 순천만의 비경이 전남의 생태관광지로 손꼽을 수 있으리만큼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외 담양 창평·신안 증도 슬로시티의 구석구석 답사단을 통해 창평 돌담장과 증도의 갯벌이 소개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어디야?'라는 화제성과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최근 전남 지역민들의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해 음식, 숙박, 운송업, 휴게소, 관광해설사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오는 10월 열리는 F1 대회, 2012세계여수박람회 등을 앞두고 외래 관광객에 대한 도민의 환대서비스 품질 향상 등 관광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였다.

한국방문의 해라는 국가적인 이벤트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동시에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같이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차질없이 대비하는 데 있어 숙박, 식당의 시설 확충 이외에 더욱 중요한 점은 '민의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남 관광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자리였다.

이처럼 관광객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전남 구석구석 여행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민의 친절도를 높이는 지역민의 '친절한 전남 만들기' 캠페인이 전개됐으면 한다. 음식업소의 청결과 친절, 숙박업소의 환대, 관광해설사의 미소 등 남도의 따뜻한 정과 친절을 보여줘 만족을 넘어선 감동의 관광 전남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2010년은 친절 전남의 관광원년으로 정하고 올 여름 해외로 나가는 혼잡한 여행지 경험보다는 가족과 친지와 같이 독특한 체험과 풍부한 볼거리가 있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일번지 남도에서 맛과 멋을 찾는 여행감동이 넘쳐나도록 친절과 청결로 승부수를 걸어볼 때이다. 친절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전남도립대학 호텔관광레저과 교수〉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발암물질 대책 마련해야

요즘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많아졌다. 천연 잔디를 깔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조성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고 그걸 관리 유지하기도 힘드니 모양만 좋은 인조잔디를 많이들 쓴다.

이게 멋져 보이지만 납과 발암물질이 적잖다는 것을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인조잔디는 강하게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세게 충격을 받으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타이어 등을 재료로 활용해 충격완화용으로 잔디 밑에 깔아서 쓴다.

며칠 전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인조잔디 운동장을 검사한 결과 8곳의 고무알갱이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이 검출됐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발암물질이 뛰노는 아이들의 호흡기나 혹은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갈 경우 어떤 위험성을 발생시킬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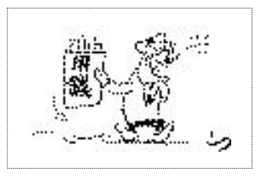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만들어진 인조잔디 운동장이 17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숫자를 더 늘릴 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안전위생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용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용전(用錢)



뇌물은 얼마를 줘야 효과를 발휘할까?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된다는 것이 비즈니스계의 통설이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는 속담이 있듯, 액수가 적으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 너무 많아도 부담스럽다. 후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도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장' 정도 더 넣으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쓴 바 있다.

얼마 전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서도 적정 뇌물 액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입에서다. 그는 오찬장 의자에 5만 달러를 놓고 나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용전(用錢)의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용전의 효과는 사기업에서 쓰는 용어인데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며 "10만 달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는 적고, 1만 달러를 원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면 부담스러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소비)의 증가에 따라 뇌물 효과(한계효용)가 감소해 가는 이른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로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로비의 귀재는 1997년 한보사태의 주역 정태수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정·관계에 100억원의 돈을 뿌린 그는 '0 하나 더 붙이는 액수'로 상대를 움직였다.

뇌물 되돌려 주기로 '인기'를 유지했던 단체장도 있었다. 이 단체장은 기업인들이 '용돈이나 하시라'고 가져오면 절반을 뚝 떼어주며 '나눠쓰자'고 했다고 한다. 반면 다른 단체장은 방석 밑에 넣기 바빠 '샌님'으로 불렸다는 말이 회자 된 적이 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하지만, 선거철에 눈치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소식이어서 딱 잘라 옛일이라고 할 수도 없겠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